

##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및 현도면 주민 한마당 참석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인권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

여러분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생활이 생각보다 넉넉지 않아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도 좋지만 계속 발전해 여러분 아이들에겐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정부, 국민 모두 힘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공치사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은 솔직한 느낌으로 공치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KBS 방송사가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방송이 되면 우리 국민들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도 지난번 TV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사람에 관한 것을 봤고, 정부 정책토론에서 사례를 보고 받았습시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KBS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프로를 통해 이방(외국)에서 결혼으로 오게 된 신랑, 신부들의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 또 여기서 이 마을 사시는 분들과 우리 에미레 씨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KBS와 이번 행사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이 때로는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군인이나 선원으로 해외에 아이들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쪽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서 돈 좀 벌기 위해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도 보호가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합법적 신분을 잃어버리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 중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는 우리 국민의 기득권을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현재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규제나 그들이 여기에서 살 때의 문화적 접근 방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게 된다면 이 문제들까지 해결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단계 대책**

제가 말한 것이 모두 다 보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고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공사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나온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폭도 좀 넓어지고 취업이 되면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1년, 2년, 3년 살면서 직장을 잃기 싫고, 또 한국 사람들과 또는 외국인끼리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 현재는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강제로 내보내게 돼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로서는 법을 확실하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이지만 아이들 학교는 다니게 해주고 또 그밖에 할 수 있는 보호는 해주기도 하고, 또 부득이 내보낼 때는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합법으로 풀지 못하는 이유는, 만일에 그것을 불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서 감당이 안 되니까 조절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태는 불법이지만 돌봐 주어야 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는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입니다.

그 대응 방법을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서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한 사람들이 한국국민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론 합법적입니다. 대부분 잘 어울려 사는 듯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언론들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같이 사는 방법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혼을 통해 같이 사는 방법이 먼저 열려가고 있는 것

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폐쇄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남들하고 잘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결정 내린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며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빨리 그 변화를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면 그 변화가 마찰 없이 빨리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는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세계화는 교류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는 것**

지금처럼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나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이웃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더하여 방송과 언론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지에 관해서 경험을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받아서 정책을 하는 사람까지도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정부도 정책을 추진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가 우리 휴대전화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계화라는 것은 교류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가 점점 하나로 합쳐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백만 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까지 만 킬로 정도 오는 데

에 걸린 시간이 엄청난 것입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상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북방에서 왔는지 남방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 킬로의 거리가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만큼 교류가 빨라지면서 문화와 혈연도 빠르게 섞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2백년 후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민족이나 혈통을 알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면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수용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습관도 다른데다가 아이들은 먼저 밖에서 말을 배워오는데 그러는 동안 엄마는 말이 썩 늘지 않아서 오는 언어의 어려움도 클 것입니다. 또 통계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조건도 아직은 농촌이 도시보다 못한데다, 그 농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TV, 방송, 신문들을 보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아주 빨리 받아들입니다.

### **아이들 키우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것**

우리 한국사회도 급속히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좀 떨어집니다. 앞뒤의 차이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 사이를 좁혀 나가는 기능을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낙오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책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정책은 절반이 그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력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주택, 교육 문제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 균등에 대해서는 아주 정책적으로 잘 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들 키우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활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꼭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